



광주일보 채널A 뉴스의 심장인 방송 스튜디오가 광주 무등빌딩 15층에 마련돼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갔다. 서울 채널A 방송국과 연결, 뉴스와 대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HD 방송 전면전환에 따라 최첨단 방송장비 및 시설로 꾸며졌다.

A CHANNEL

## 광주일보 TV시대 개막

내년으로 창사 60주년을 맞는 광주일보가 대한민국 언론사의 새 지평을 엽니다.

광주일보는 12월 1일 개국하는 채널A와 함께 방송뉴스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본사 15층 방송스튜디오도 본격 가동합니다.

본사 방송스튜디오는 내년 전면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라 최첨단 HD 영상 장비로 꾸려져 시청자들에게 초고화질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A는 동아 미디어그룹의 종합 편성 TV로 케이블 방송, IPTV, 위성 방송 기업자라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어 시청 인원은 국내 TV 시청 가구 가운데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본 채널번호는 18번으로 확정됐으며, 일부 지역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따

스튜디오 가동 1일부터 방송뉴스 서비스 시작

편집국도 통합뉴스룸 전환 생생한 소식 전달

라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10여명의 광주일보 기자들이 광주·전남 사건의 현장에서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보도하는 공감각적인 뉴스를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뉴스의 심장인 편집국도 신문(광주일보) 기자가 방송 기자를 겸하는 통합뉴스룸으로 전환합니다. 국내 어떤 언론사도 시도하지 못한 신문·방송 통합으로 신문의 심증성과 다양성, 방송의 속보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살리게 됩니다.

뉴스 편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방영되는 '굿모닝 채널A입니다'를 통해 광주일보 주요 뉴스가 소개되며 낮 12시10분부터 20분간 '채널A 뉴스와 경제'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후 5시40분부터 20분간 지역뉴스인 '네트워크 A'에 광주·전남 구석구석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어 저녁 8시30분부터 50분간 '채널A 뉴스 830', 밤 12시10분부터 10분간 '채널A 한밤뉴스'에서도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시청자들의 안방에

찾아갑니다.

최첨단의 본사 스튜디오는 채널A 뉴스 스튜디오와 생중계 체계를 구축,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도 곧바로 대응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널A와 광주일보, 경남신문, 강원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가 전국 뉴스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간의 소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채널A 방송뉴스는 본사 홈페이지 (www.kwangju.co.kr)를 통해서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송뉴스로 시·도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는 광주일보 채널A 방송에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 외국어 영역 만점자 1만7049명

난이도 조절 실패 '쉬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영역별 3~14점 떨어져

### 서울대 경영대학 535점·의예과 542점

지난 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을 수능은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쉬워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영역별로 3~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영역은 역대 가장 쉬운 '룰 수능' 수준으로 3점짜리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1등급이지만 그 이상 틀리면 2등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문계의 언어와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보는 수리 '가'형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나 대입 성적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관련 기사 6·7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

국어 2.67%였다. 이는 작년 수능(언어 0.06%, 수리 '가' 0.02%, 수리 '나' 0.56%, 외국어 0.21%)보다 모두 높아진 것이다. 인원수로도 언어 만점자 1825명(이하 지난해 403명), 수리 '가' 482명(35명), 수리 '나' 4397명(2683명), 외국어 1만7049명(1383명)으로 대폭 늘었다. 언·수·외 3개 영역 모두 만점자는 인문계열이 146명, 자연계열이 25명이었다.

이투스 청솔학원은 이날 채점결과를 분석,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인문계)에 지원하려면 수능 표준점수(800점·가군 전형) 기준으로 530점대 초중반 성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대 경영대학·사회과학계열 합격선은 535점, 서울대 의예과는 542점으로 추정됐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

점으로 추정됐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학점선은 534점, 국어교육과는 533점, 연세대 경영계열 534점, 고려대 경영대학 533점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연세대 자유전공학부는 532점, 연세대 외국어문학부는 (영문) 531점, 고려대 경영대학은 532점이 학점선으로 추정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암학원 장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건설사 90여곳 공공공사 입찰 금지

전국 10대사, 광주·전남 10여곳 포함…허위서류 제출 적발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대형 건설사 90여 곳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사도 1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업체는 다음달 13일부터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조달청은 29일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69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K사와 N, S사 등 광주·전남지역 15개 안팎의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달청은 경종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 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 결정을 했고, 39개사는 6개월, 26개사는 3개월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조달청은 조만간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지으로 전해져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건설업체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이 2006년 5월 저가심사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거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퍼스티발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 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고 문화 3층 대예배실  
참가신청 : 2011년 12월 29일(금)까지 ■참가료의  
※자세한 내용은 본고 홈페이지를 참조 062)605-1130  
입학 문의 www.kwangshin.ac.kr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 광주의 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

민선 5기 투자유치 148개사(국내 113, 외국 35) 22,174억원  
R&D 특구 지정(2011. 1), 과학비즈니스벨트 GIST캠퍼스 유치(2011. 5)

▣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 : 09. 9월 57.4% → 10. 9월 57.1% → 11. 9월 57.6%  
실업률 : 09. 9월 3.5% → 10. 9월 2.8% → 11. 9월 2.0% (특광역시 중 최저)

▣ 지역산업 발전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2009년 9월 (6,149백만불) → 2010년 9월 (8,143백만불) → 2011년 9월 (10,102백만불)

### 시민과 함께하는 투자유치!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투자유치도 하고, 성과금도 받고

투자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기관·단체·기업  
연간 국내자본 30억원 이상, 외국자본 3백만불 이상 유치시  
- 유치금액의 7/10,000 ~ 3/10,000 이내에서 성과금 지급